

“20만 발달장애인도 대통령 뽑고 싶다”

발달 장애인단체들이 오는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단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고치는 바람에, 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6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부터 신체·시각 장애인만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기표소에 동반할 수 있게 매뉴얼을 고쳤다. 이때문에 지적·자폐 장애를 앓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가족 등 투표를 도와줄 투표 보조인을 동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시각·신체 장애인만 투표 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발달장애인을 투표 보조 인력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관위, 인권위 권고에도 지적·자폐 장애인 투표 보조 불가 광주·전남 발달장애인 2만1000명 참정권 보장 요구 나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체·시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글을 읽지 못하거나, 손 떨림 등으로 혼자서는 투표가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게 투표보조 인력은 필수라는 게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매뉴얼이 수정되고 나서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가족과 함께 기표소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적지 않았다”며 “손 떨림이 심하거나 손에 힘이 없어 도장을 들고 기표한 뒤 용지를 접는 것도 어려워하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선관위의 결정은 차별

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음에도 선관위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에게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선거사무원에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보조의 도움으로 기표를 할 경우, 비밀투표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대리투표의 우려도 있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단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도 청원글을 쓰고 선관위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

섰다. 장애인단체들은 “20만 발달장애인도 대통령 뽑고 싶다! 투표보조를 지원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습니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것입니”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은 지난 18일 장애인들이 공직선거 접근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 등을 제공하라는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장은 “장애인들은 투표과정에서도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게다가 사전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선거사무원이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지역 발달장애인은 2만 1336명(광주 8282명·전남 1만 3054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교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전남도교육청

전남교육청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학교 공사현장 안전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본청 간부와 22개 시·군 교육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안전복지과 안전교육팀을 (가칭)중대재해예방팀으로 전환하고 전담 인력 2명을 충원했다.

(가칭)중대재해예방팀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시행령으로 위임된 9가지 사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



지하철역 시 채소농장 26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역에서 미래형 농장인 AI(인공지능) 스마트팜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금남로4가역 지하 2층 총 3000여평 공간에 조성된 ‘AI 스마트팜’ 시설은 엽채류와 딸기, 새싹인삼 등이 재배되고 일평균 100kg의 무농약 농작물이 365일 내내 생산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급성 심근경색 발생 24시간내 병원 도착해야”

국내 연구진, 고령 당뇨 여성 심장혈관 중재술 가능 병원행 제안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병증 발생후 24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연구 논문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특히 이 논문은 당뇨병을 가진 고령의 여성 환자는 증상 발생시 신속히 119를 이용해 심장혈관 중재술을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팀(KAMIR)은 26일 ‘급성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NSTEMI)’ 환자는 증상 발생 후 24시간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논문 결과가 미국심장학회지(JACC)에 세계 최초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 논문의 제 1저자는 차정준·배성아 교수이며, 교신저자는 안태훈·정명호 교수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KAMIR)에 등록된 환자 중 6544 명의 ‘NSTEMI’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았던 4717 명의 환자와 24시간 이후에 병원을 찾았던 환자 1827 명의 3년간 임상결과를 관찰해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두 연구 대상의 사망률은 각각 10.5%와 17.0%로서 24시간 이후에 내원했던 환자의 사망률이 의미 있게 높았다. 24시간 이후에 병원에 도착해 사망했던 환자들은 75세 이상의 고령이나 여성, 비전형적 흉통, 호흡곤란, 당뇨병, 119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 등이었다.

한편 KAMIR 연구는 2005년부터 대한심장학회 50주년 기념 연구 사업으로 전남대병원이 주관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352 편(SCI 323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서양보다 더 많은 연구업적이다. 이번 발표로 미국심장학회지인 JACC에는 올해까지 네 번째 논문을 발표하게 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통일부 ‘대학생 통일강좌사업’ 선정

호남대학교의 ‘통일사회 유망직업’ 교과목이 통일부에서 주최한 2022년 1학기 ‘대학생 위한 통일강좌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국 15개 대학 중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이 교과목은 통일부 22기 통일교육위원과 광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

로 활동중인 호남대 융합학부 남지연 교수가 책임교수를 맡고, 전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행정학과 김형성 교수와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가 강사로 초빙돼 통일 관련 국내 최고전문가 8명과 함께 팀티칭 방식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강의는 통일시대를 위한 심리상담, 경찰, 외교,

의료, 전기에너지, 건축, 미술, 문학 등 MZ세대들의 전공과 관련한 미래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했던 ㈜신원GLS부사장의 남북경협 운영경험을 통해 학생창업에 대한 진로비전을 제시하고, 수업 내 통일커리어디자인 공모전과 DMZ 현장체험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교양선택 과목을 통한 체험형 교과과 비교과 혼합 수업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

전 KIA 투수 브룩스 ‘대마초 흡연’ 집유

지난해까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서 외국인 투수로 활약한 에런 브룩스(32)가 마약류를 밀수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KIA 소속 투수 브룩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브룩스가 밀수했다가 압수된 대마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30개를 몰수하고 10만원

을 추징했다. 브룩스는 지난해 3월 31일 국내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예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총 100g인 대마젤리 30개를 주문한 뒤, 같은 해 7월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미국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는 국제수편으로 보냈다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광주시 서구 한 공원에서 담배 형태로 제작된 대마에 불을 붙여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나는 떠났고, 네가 살던 세상의 흔적을 오석의 그리고 싶다

<오석의 대표적 장점>

- ✔ 영구적
- ✔ 종량감
- ✔ 아득함
- ✔ 신
- ✔ 불변함

<주 사용자>

문패, 준공성, 식수석, 묘지용 와비, 납골당 수목장 표지석, 인테리어 돌액자

- 주요제작사이즈 -

1. 100×200×20
 2. 200×200×20
 3. 300×200×50
 4. 400×300×20 (가로×세로×높이)
- 기타사이즈는 문의

[오석]의 특성

경도, 강도가 좋은 오석은 화산석, 화강암보다 더 진귀하게 여겨왔고 왕가나, 부호의 대명사였기에 비석, 표석, 묘석, 조각석 이외 많은 자재에 고급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 돌액자>

아크릴, 유리 등 다른물질에 인쇄 후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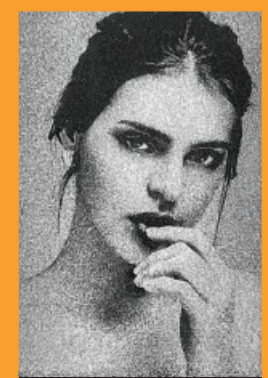


<돌 자체에 각인>

(오랜시간 변함이 없음)



전(before)



후(after)

*오석에 직접 각인하는 직접 특성상 사진과 똑같은 필리터는 불가하니 이점 감안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와이석재

문의전화 | 062)464-3466